

생활체육 참여가 사회자본 형성에 주는 영향의 실증적 분석

Effects of Participation in Sports for All on the Formation of Social Capital

김 재 경 경희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jaek@khu.ac.kr)
박 득 희† 경희대학교 관광학과 박사과정 (parkdeukhee@khu.ac.kr)
Mitsuo Sasaki 니혼대학교 상학과 교수 (sasaki.mitsuo@nihon-u.ac.jp)
Soon Ok Jung 사이타마 여자단기대학 상학과 조교수 (soonok@ka3.so-net.ne.jp)

ABSTRACT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effect of participation in sports for all on the formation of social capital. For this purpose, this study used convenience sampling method with the 150 subjects who participated Sports for All in Seoul and Gyeonggi area. and selected 150 questionnaires excluding 30 unsuitable for the data. For data analysis was made by SPSS 17.0, performing exploratory factor analysis, reliability analysis, correlation analysis and multiple regression model. This analysis reveals that (1) participation eagerness in sports for all influence on influence on the formation of social capital.(social capital consist of information sharing, norms, trust, network) (2) participation period of time and participation frequency in sports for all don't influence on on the formation of social capital. (3) socioeconomic background don't influence on the formation of social capital.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eagerness in sports for all.

Keywords: Sports for All, Social capital, participation in sport for All.

I. 서 론

현대사회에서 생활체육은 스포츠 참여의 역할에 머무르지 않고 생활체육을 주축으로 생활체육 참여자들은 공동의 경험이나 경계를 재구성하는 상징적인 사회적 행동을 통하여 사회 구성원의 건강과 화합의 장으로 활용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생활체육 참여율은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다. 주 2회 이상 규칙적으로 생활체육에 참여하는 인구는 2000년 33.4%에서 2003년 39.8%로 증가하였고, 2010년에는 50.3%로 증가하였다(김양례, 김미

숙, 박영옥, 송홍선, 이용식, 한태룡, 권순용, 김정만, 2010). 이와 같은 생활체육 참여 비율의 증가는 생활체육이 대중문화 및 여가활동에 있어서 적지 않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규칙적이고 지속적인 운동참여, 즉 생활체육 참여의 필요성과 그 효과에 대해서는 이제 대부분의 국민들이 인식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소영호, 2007).

생활체육 참여자들은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체육활동을 통하여 예의, 진실, 공정, 긍정적인 태도, 상대방 존중, 지도력, 그룹에서의 협동심 등을 습득한다. 또한 신체 활동에 대한 건전한 반응, 건강 상태에 대한 감사, 운동 수행, 여가 활동에의 관심과 가치, 신체 활동의 공헌 등에 대하여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다. 이처럼 생활체육을 통하여 발생하는 구성원들 간의 관계를 통한 정보교류의 활성화, 신뢰, 규범 등

이 논문은 2009년도 정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에 의해 연구되었음(F01-2009-000-10218-0)
†교신저자
논문접수일:2012년 4월 4일; 게재확정일:2012년 10월 25일

의 사회적 관계들에 의해 나타나는 사회적 메커니즘을 사회자본(social capital) 개념으로 설명하려는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예를 들면, 스포츠 클럽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독일의 생활체육은 일반인의 생활 속에 자리 잡은 문화적 삶의 한 형태로서, 국민건강의 증진과 적극적이며 건전한 여가선용의 한 분야로서, 그리고 지역사회에 있어서 사회적 통합에 기여하는 등 사회자본으로의 기능을 하고 있다(송형석, 이흥구, 2009).

사회자본이란 '경제주체들 간의 신뢰와 다양한 지원관계에 의해 형성되는 보이지 않는 자산'이라고 정의된다. 사회의 구성원들은 혈연관계에 포함되는 가족, 친척과 친구, 동창 등의 다양한 타인들과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사회 구성원들은 그들이 지속적으로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을 신뢰하고 지원한다(이영찬, 김영재, 이승석, 2009). 이와 같이 생활체육은 생활체육 참여 구성원들과의 관계를 유지, 지속함으로써 보이지 않는 자본으로 인식되고 있는 사회자본을 형성한다.

생활체육에 참여하는 참여자들이 참여자들 간의 커뮤니티를 형성함으로써 나타나는 새로운 문화를 통하여 정보공유, 신뢰, 규범, 연결망으로 표현되는 사회자본이 형성될 가능성이 있다(강효민, 박기동, 2008)는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를 토대로 생활체육 참여활동은 자발성, 참여 구성원들 간의 상호관계, 신뢰 형성 등의 조건을 모두 충족시켜 주고 있기 때문에 사회자본이 형성될 수 있는 좋은 장이 된다. 우리 사회에서 자발적이며, 조직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생활체육의 참여가 사회자본의 형성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를 정량적으로 규명하는 것은 분석 결과의 일반화를 위한 의미있는 연구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생활체육 참여가 사회자본의 형성에 주는 영향을 정량적으로 분석한다. 이는 생활체육 참여가 사회자본을 형성하는 특성을 밝히고, 성숙된 사회로의 발전에 생활체육이 기여할 수 있음을 보인다.

제 II장에서는 이론적 배경에 대하여 설명하고, 제 III장에서는 연구방법으로, 연구모형, 가설, 변수, 자료

를 설명한다. 제 IV장에서는 연구결과, 연구결과에 의의를 서술한다. 마지막으로 제 V장은 결론으로, 연구의 요약, 기여점, 한계점, 미래연구의 방향을 포함한다.

II. 이론적 배경

생활체육은 개인적 영역 안에서 각자의 취미, 여건, 그리고 환경에 따라 여가시간을 이용한 자발적인 참여를 통하여 개인의 일상생활을 풍요롭게 하는 신체적 활동의 의미를 내포한다(임병장, 1994). 또한, 생활체육은 삶의 질을 향상시키며, 현대 사회인의 스트레스를 완화해줌으로써 신체의 건 강유지 및 증진의 역할을 하고 있다(유호, 2011). 현대인들은 생활체육 활동을 통하여 구성원들 간의 관계에서 정보교류의 활성화, 신뢰, 규범 등의 사회적 관계를 형성한다. 이처럼 생활체육 구성원들 사이에서 나타나는 사회적 메커니즘을 사회자본(social capital)의 개념으로 설명하려는 연구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여러 선행연구에 의해 발전된 사회자본의 개념은 Bourdieu(1986), Coleman(1988), Fukuyama(1995), Putnam(1993, 1995) 등의 연구에서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다. Bourdieu(1986)는 사회자본의 개념을 특정한 집단의 구성원이 됨으로서 얻게되는 실제적인 또는 잠재적인 자원의 총합계, 즉 지속적인 네트워크의 소유 정도와 관련된 실제적 혹은 자원의 결합체라고 정의하였다. Coleman(1988)은 사회자본의 개념을 연결망, 연합, 제도, 규범 등의 사회구조와 관련되는 구조적 측면과 개인이 받아들이는 태도, 행동규범, 공유된 가치, 상호관계, 신뢰와 같은 요소와 관련되는 인지적 차원, 그리고 생산적인 가치를 통해서 목적을 성취할 수 있도록 하는 측면과 함께 그 속에서 개인이 특정한 행위를 촉진시키는 가치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고 정의하였다. 연결 형태와 규범에 중점을 둔 Putnam(1993)의 사회자본 개념은 일련의 공동체의 사회적 생산성에 영향을 주는 사람들 간의 관계에서 형성되어 개인과 집단의 발전을 가져오는 동력이다.

여기에는 두 가지의 가정이 사회자본 개념에 내포되어 있다. 하나는 시민참여의 연결망과 규범이 경험적으로 관련되어 있다는 것이며, 두 번째는 그것들이 중요한 경제적 결과를 낳는다는 것이다. 즉 사회자본은 신뢰, 규범, 연결망 등과 같은 사회조직의 특징과 관련되는 것으로 사회구성원의 상호이익을 위해 조정과 협력을 가능케 함으로써, 경제적 효율을 강화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Fukuyama(1995)는 신뢰를 사회자본을 핵심적 측정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신뢰는 상호 호혜성 규범, 시민적 임무, 도덕적 의무 등이 사회의 유지와 깊은 관련이 있다고 정의하였다.

최근까지의 사회학적 연구영역에서는 설문조사 결과를 이용하여 사회자본이 거버넌스 형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연구(이숙중, 김희경, 최준규, 2008)를 통하여 사회자본을 신뢰로 유형화하였으며, 우리나라 지역사회의 사회자본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에 대한 연구(박희봉, 김명환, 2000)를 통하여 지역사회의 참여, 하나의 요인이 아닌 다양한 요인들의 긴밀한 관계가 형성되어야 사회자본의 성숙이 이루어진다고 보고하고 있다. 사회자본의 영향력에 대한 연구(Chiesi, 2007)와 사회자본의 공식적/비공식적 패턴에 대한 연구(Pichler & Wallace, 2007)들이 이론적 토대를 제시하고 있다. 유한킴벌리 대전공장, 포스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CoP(Communities of Practice)활동에 대한 실증적 사례연구를 실시하여 CoP활동이 사회적 자본과 조직성과에 긍정적이 영향을 준다는 연구(김동현, 김영재, 이영찬, 2010)가 진행되었다. 그리고 기업 내 구성원들의 사회적 네트워크의 특징이 구성원들의 의사소통과 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진동철, 홍아정, 2012)

한편 스포츠 분야에서도 사회자본의 형성과 관련된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되었다. 볼링동호인의 사회적 연결망의 정성적 분석(최경애, 박창범, 임수원, 2004), 인라인스케이트 동호인의 사회연결망에서의 자원교환의 생성과 형태를 정성적으로 분석(박창범, 임수원, 2005), 스포츠클럽 활동과 네트워크, 공동체 의식, 규범, 사회적 적응의 특징을 갖는 구조적 사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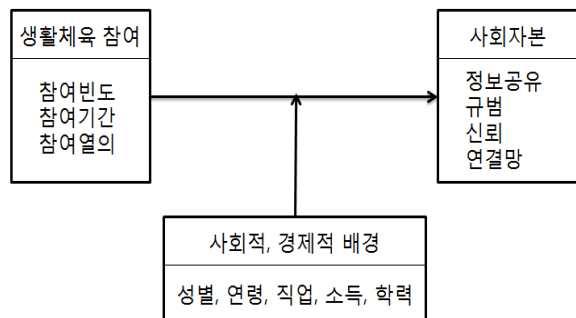
적 자본과 동조, 정보공유의 호혜성, 신뢰, 사회적 배타의 특징을 갖는 인지적 사회적 자본의 형성과 특징을 정성적으로 분석(강효민, 박기동, 2008), 지역사회 생활체육 동호회의 참가정도(빈도, 강도, 경력)가 커뮤니티 의식(육구 통합 및 충족, 구성원 의식, 상호영향력, 정서적 유대감)에 주는 영향 조사(함경수, 최종인, 2010), 스포츠 참여자의 사회자본 척도개발 적용(김명준, 2006) 등의 지속적인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스포츠 분야의 기존연구들은 주로 정성적인 분석 방법을 이용하여 생활체육의 참여가 사회자본 형성에 주는 영향이나 형성된 사회자본의 특징을 조사하고 있거나 사회자본보다는 커뮤니티 의식, 정보의 교환관계, 신뢰관계 등에 초점을 두고 조사하고 있다. 이러한 기존연구들은 생활체육 참여가 사회자본의 형성과 관련되어 토대가 되는 연구지만, 생활체육의 참여와 사회자본의 형성을 정량적으로 분석하는 연구는 제한적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생활체육 참여가 사회자본의 형성에 주는 영향을 정량적으로 분석한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모형 및 연구 가설설정

본 연구는 생활체육의 참여활동과 정보공유, 규범, 신뢰, 연결망으로 구성된 사회자본 변수를 이용하여 생활체육 참여가 사회자본 형성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그림 1>과 같은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그림 1] 연구모형

일본의 라디오 제조는 기존의 엘리트체육과 다른 생활체육의 유형으로 지역사회 커뮤니티(지역결속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연구 결과 나타났다(재단법인 통계연구회, 2009). 또한 최근 보이지 않는 자본으로 인식되고 있는 사회자본은 정보공유, 규범, 신뢰, 연결망 등의 4가지의 요인에 의해 예측되어 진다(박희봉, 김명환, 2001; 김명준, 2006; 김승현, 2008). 강효민과 박기동(2008)은 지역사회에서 스포츠 클럽 활동에 참여에 따른 사회자본 형성의 특징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구조적 사회자본(네트워크, 공동체 의식, 규범, 사회적 적응)과 인지적 자본(인지적 사회적 자본)으로서 동조, 정보공유의 호혜성, 신뢰 그리고 사회적 배타)으로 규명하였다. 김명준(2006)은 스포츠 참여자의 사회자본 척도를 개발하기 위한 연구를 통하여, 스포츠 활동이 사회자본 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개인의 사회경제적 배경도 사회자본 형성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하게 통제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기존의 연구결과(박희봉, 김명환, 2001)를 참고하여 성별, 연령, 직업, 소득, 학력을 이용하였다.

이러한 기존의 선행 연구들을 토대로 변수들 간의 관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가설을 도출하였다.

가설1. 생활체육 참여는 사회자본 요소인 정보공유에 영향을 줄 것이다.

하위가설1.1. 생활체육 참여빈도는 정보공유에 영향을 줄 것이다.

하위가설1.2. 생활체육 참여기간은 정보공유에 영향을 줄 것이다.

하위가설1.3. 생활체육 참여열의는 정보공유에 영향을 줄 것이다.

가설2. 생활체육 참여는 사회자본 요소인 규범에 영향을 줄 것이다.

하위가설2.1. 생활체육 참여빈도는 규범에 영향을 줄 것이다.

하위가설2.2. 생활체육 참여기간은 규범에 영향을 줄 것이다.

하위가설2.3. 생활체육 참여열의는 규범에 영향을 줄 것이다.

가설3. 생활체육 참여는 사회자본 요소인 신뢰에 영향을 줄 것이다.

하위가설3.1. 생활체육 참여빈도는 신뢰에 영향을 줄 것이다.

하위가설3.2. 생활체육 참여기간은 신뢰에 영향을 줄 것이다.

하위가설3.3. 생활체육 참여열의는 신뢰에 영향을 줄 것이다.

가설4. 생활체육 참여는 사회자본 요소인 연결망에 영향을 줄 것이다.

하위가설4.1. 생활체육 참여빈도는 연결망에 영향을 줄 것이다.

하위가설4.2. 생활체육 참여기간은 연결망에 영향을 줄 것이다.

하위가설4.3. 생활체육 참여열의는 연결망에 영향을 줄 것이다.

2. 변수의 조작적 정의 및 측정

설문에서 생활체육의 참여와 관련된 문항은 일본의 재단법인 통계연구회(2009)에서 조사된 라디오 제조 및 커뮤니티(지역결속력)에 대한 연구보고서를 기초로 하여 생활체육 참여빈도, 생활체육 참여기간, 생활체육 참여열의를 구성하였다(부록 참조).

기존연구들에서 사회자본은 구성원들 간에 발생하는 사회적 상호작용 및 관계에 근거한다는데는 의견이 일치하고 있으나, 사회자본을 구성하는 요소들은 다양하게 선택되어 이용되고 있다. 사회자본의 개념을 규범, 신뢰, 네트워크로 측정(박희봉, 김명환, 2001)하거나, 연결망, 규범, 신뢰, 정보공유, 지위향상으로 측정(김명준, 2006)하고 있으며, 또는 네트워크, 규범/제도, 신뢰로 측정(김승현, 2008)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자본을 정보공유, 규범, 신뢰, 연결망 차원에서 측정한다. 정보공유는 사회자본에서 정보공유의 역할을 하여 정보획득, 취업, 공동체 동원과 같은 사회목적을 달성하는데 효과적인 것을 의미하며

(강효민, 박기동, 2008), 본 연구에서는 3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규범은 기본적으로 사회적 시스템 내에서의 합의(consensus)의 정도를 의미한다(Narayan & Cassidy 2001). 내면화 또는 외부적 제재를 통해 지탱되는 규범은 공공재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Narayan & Cassidy(2001)를 바탕으로 3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신뢰는 사회적 자본을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로 개인과 단체생활, 공공활동에 있어서의 행태, 태도, 성향에 기초가 되는 통합된 개념(Putnam, et al., 1993; Putnam, 1995)이다. 신뢰와 관련된 항목은 박희봉과 김명환(2001), 김명준(2006), 김승현(2008) 등을 참고하여 5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연결망은 개인이나 집단 등 행위자들 간의 전체적인 연계형태를 의미한다(최영출, 2004). 누가 누구에게 어떻게 접근하는가에 관한 관계 구조이다. 본 연구는 Grootaert & Bastelare(2002), Rohe(2004), 최영출(2004) 등을 이용하여 3문항을 구성하였다. 사회자본 측정 문항들은 리커트 5점 척도(1 = 매우 그렇지 않다, 3 = 보통, 5 = 매우 그렇다)로 조사되었다.

사회경제적 배경과 관련된 문항은 생활체육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인 성별, 연령, 직업, 소득, 학력의 5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성별은 남녀로 구별하며, 직업군의 데이터는 표본을 다섯 개의 군으로 나누었다.

IV. 실증분석

1. 표본의 특성 및 상관관계

본 연구에서는 생활체육 참여가 사회자본 형성에 주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서울과 경기도 소재의 생활체육(배드민턴, 축구, 등산, 야구, 볼링, 게이트볼) 단체의 참여자를 대상으로 설문하였다. 설문 조사는 2010년 9월 1일부터 9월 8일까지 진행되었으며, 연구자가 생활체육 장소에 직접 방문하여 생활체육 참여자의 협조를 구한 다음,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지는 응답자가 설문지를 직접 작성하는 자기평가

기입법으로 작성되었다.

설문 조사에 참여한 참가자는 150명이었으나, 회수한 설문지 가운데 불성실한 응답자의 설문 30부를 제외한 120부를 최종적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 대상의 일반적 특성은 <표 1>와 같다. 남자는 78명(65%), 여자는 42(35%)명이었다. 연령별로 20대가 47명(39.2%)으로 가장 많이 참여하였고, 50대가 23명(19.2%)으로 그 뒤를 이었다. 직업은 사무직에 종사하는 응답자가 36명(30.0%)이었고, 학생이 34명(28.3%)이었다. 소득별로는 99만원이하의 응답자가 30명(25.0%), 100-199만원 28명(23.8%), 200-299만원 28명(23.3%)으로 그 뒤를 이었다. 학력별로는 대졸이 58명(48.3%)으로 가장 많았고, 고졸 이하가 39명(32.5%)으로 그 뒤를 이었다. 생활체육의 참여 종목은 배드민턴 28명, 축구 28명, 등산 14명, 야구 29명, 볼링 11명, 그리고 게이트볼 10명이었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통계 분석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수행되었다. 첫째, 탐색적 요인분석(exploratory factor analysis)을 수행하여, 생활체육 참여가 사회자본에 주는 요인을 확인하였다. 둘째, 확인된 요인에 대한 신뢰도와 타당도를 크론바하 α 를 이용하여 검증하였다. 셋째, 회귀분석으로 생활체육 참여가 사회자본 형성에 주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표 2>은 피어슨 상관계수 분석 결과이다. 생활체육 참여빈도는 생활체육 참여기간이나 생활체육 참여열의와 1% 유의수준에서 정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생활체육에 장기간 참여한 사람이 자주 참여하였다. 또한 자주 참여하는 사람이 참여열의가 높았다. 그러나 생활체육 참여기간과 참여열의는 상관관계가 없었다. 정보공유와 규범, 연결망은 1%의 유의수준에서 정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생활체육 참여열의는 사회자본 변수들과 0.3내외의 정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회귀분석을 위한 기본 가정들(예를 들어, 분석 자료에 이상치(outlier) 없음, 설명(독립)변수의 수와 표본 수의 적정 비율, 자료의 선형성과 정규성, 잔차 간의 비자기상관성 등)(Hair, et al., 2005; Lee & Kim, 2006)이 충족됨을 확인하였는데, 이는 기존연

[표 1] 응답자의 특성

변수	구 분	인원(명)	백분율(%)
성별	남성	78	65.0
	여성	42	35.0
연령	20대	47	39.2
	30대	20	16.7
	40대	21	17.5
	50대	23	19.2
	60대 이상	9	7.5
직업	학생	34	28.3
	사무직	36	30.0
	전문직	26	21.7
	자영업	11	9.2
	기타	13	10.8
소득	99만원 이하	30	25.0
	100-199만원	28	23.3
	200-299만원	28	23.3
	300-399만원	14	11.7
	400만원 이상	20	16.7
학력	고졸 이하	39	32.5
	초대졸	14	11.7
	대졸	58	48.3
	대학원 이상	9	7.5
생활 체육 종목	배드민턴	28	23.3
	축구	28	23.3
	등산	14	11.7
	야구	29	24.2
	볼링	11	9.2
	게이트볼	10	8.3

[표 2] 피어슨 상관관계 분석

	참여빈도	참여기간	참여열의	정보공유	규범	신뢰
참여빈도	1.000					
참여기간	0.461**	1.000				
참여열의	0.266**	0.086	1.000			
정보공유	0.089	0.039	0.487**	1.000		
규범	0.209*	0.057	0.260**	0.365**	1.000	
신뢰	-0.039	0.058	-0.087	0.000	0.145	1.000
연결망	-0.019	0.024	0.340**	0.253**	0.286**	0.116

*p < 0.1; **p < 0.05

구(Lee & Kim, 2006)의 방법을 이용하였다.

그러나 통제변수로 사용되는 사회경제적 배경과 관련된 5개의 변수들 중 연령, 직업, 소득의 3개의 변수 간에 다중공선성이 발생하였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변수 제거법(Gujarati, 2003)을 사용하여 연령 변수를 제거하였다. 표본의 수가 120이므로, 회귀분석을 위한 독립변수의 수와 표본 수는 10 이상의 적절한 비율(Hair, et al., 2005)을 유지하고 있다 (<표 4> 참조).

은 0.642~0.846, 신뢰는 0.820~0.830, 연결망은 0.767~0.799로 나타났으며, 고유값(eigenvalue)은 각 요인별 1이상이고 누적 비율은 69.0%로 타당(Hair, Anderson, Tatham, and Black, 2005)하였다. 또한 각 변수의 항목 문항에 대한 신뢰도를 나타내는 크론바하 α 는 0.724(정보공유), 0.754(규범), 0.559(신뢰), 0.510(연결망)이었다. 일반적으로 크론바하 α 는 0.7이상이어야 하며, 0.5까지는 좋지는 않지만 수용할 수 있다(Nunnally, 1978). 본 연구에서 연결망 변수와 신

[표 3] 전체 연구단위들에 대한 확인요인분석 결과

요인	연구변수 및 항목	요인1	요인2	요인3	요인4
정보 공유	나는 주변 사람들과 필요한 자료, 정보, 지식을 공유한다.	0.797	0.221	-0.083	0.085
	나는 다른 지역의 사람들과 교류 활동을 한다.	0.792	0.019	-0.007	0.172
	나는 사이버 상의 홈페이지나 게시판 등을 통한 정보교류를 한다.	0.789	0.197	0.061	-0.023
규범	나는 상대방을 배려한다.	0.116	0.846	0.067	0.048
	나는 상대방을 대할 때 신중하게 대한다	0.218	0.831	0.088	0.080
	나는 사람을 대할 때 공정하게 대한다.	0.133	0.642	0.075	0.438
신뢰	나는 지역사회 이웃을 신뢰한다.	-0.039	0.020	0.830	0.191
	나는 자신이 속해있는 집단을 신뢰한다.	0.016	0.150	0.820	-0.169
연결망	생활체육에 참여하는 참여자들 사이의 유대관계가 높다고 생각한다.	0.035	0.038	-0.086	0.799
	나는 어려움에 처했을 때 주위의 사람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0.155	0.230	0.123	0.767
고유 값(eigenvalue)		1.99	1.98	1.41	1.53
분산(누적 69.0%)		19.9	19.8	14.1	15.2
신뢰도(크론바하 α)		0.724	0.754	0.559	0.510

신뢰 변수의 크론바하 α 가 충분하지는 않지만, 수용할 수 있는 신뢰성의 최소 기준인 0.5를 초과한다.

2.. 측정도구의 타당성 및 신뢰성 검증

사회자본 요인들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 전체 19개 문항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 요인구성에 부적합한 4개의 측정문항을 제거하고 고유치가 1.0 이상의 4개 요인을 추출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설문지의 요인분석과 신뢰도 분석 결과는 <표 3>과 같다. 요인분석 결과, 정보공유의 요인 적재량(factor loading)은 0.789~0.797, 규범

3. 가설검증 결과

<표 4>는 생활체육 참여 변수가 사회자본 형성에 주는 영향을 분석한 회귀분석 결과이다. 생활체육 참여열의는 정보공유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주었으나, 생활체육 참여빈도와 참여기간은 정보공유에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모형 1). 모형의

설명력은 26.4% 이고, F 통계량은 5.67이며 1% 수준에서 유의하였다. 하위가설 1.3은 지지되었으나, 하위가설 1.1과 1.2는 기각되었다. 따라서 가설 1은 부분적으로 지지되었다. 생활체육 참여빈도, 참여기간, 참여열의는 규범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하위가설 2.1, 2.2, 2.3의 검정결과는 다음과 같다. 모형 1과 마찬가지로 생활체육 참여열의가 정보공유에 주는 영향은 5%의 유의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생활체육 참여빈도와 참여기간은 규범에 영향을 주지 못하였다. 회귀 모형의 설명력은 9.7%이고, 모형은 10% 수준에서 유의하였다. 하위가설 2.3은 지지되었으나 하위가설 1.1과 1.2는 기각되어, 가설 2는 부분적으로 지지되었다.

생활체육 참여빈도, 참여기간, 참여열의는 신뢰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하위가설 3.1, 3.2, 3.3을 검정하였으나, 본 연구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생활체육 변수들은 신뢰와 통계적으로 아무런 관련이 없었다. 따라서 가설 3은 기각되었다.

연결망에 주는 생활체육의 영향(모형 4)도 모형 1이나 모형 2와 유사한 결과가 발견되었다. 따라서 가설 4도 부분적으로 지지되었다.

가설검정 결과, 생활체육 참여가 사회자본 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 발견되었다. 본 연구에서 정보공유, 규범, 신뢰, 연결망으로 표현되고 있는 사회자본의 형성과 축적은 정보를 공유하고, 규범을 준수하며, 신뢰하고, 연결되어 있는 건전하고 성숙된 사회로의 발전을 나타낼 수 있다.

[표 4] 생활체육 참여의 다중회귀분석결과

생활체육은 생활체육 참여자의 건강뿐만 아니라

	정보공유 (모형 1)	규범 (모형 2)	신뢰 (모형 3)	연결망 (모형4)
상수	6.172*** (1.134)	7.234*** (0.923)	2.985*** (0.804)	5.030*** (0.680)
참여빈도	-0.050 (0.136)	0.157 (0.110)	-0.091 (0.097)	-0.107 (0.082)
참여기간	0.025 (0.107)	-0.043 (0.086)	0.052 (0.076)	0.047 (0.065)
참여열의	0.807*** (0.164)	0.335** (0.137)	0.014 (0.117)	0.349*** (0.099)
성별	-0.365 (0.305)	0.090 (0.241)	0.331 (0.212)	-0.101 (0.181)
직업	0.067 (0.125)	-0.019 (0.100)	-0.015 (0.089)	-0.109 (0.075)
소득	-0.072 (0.099)	0.069 (0.079)	0.116 (0.070)	-0.050 (0.059)
학력	-0.181 (0.140)	0.039 (0.112)	0.054 (0.099)	0.039 (0.083)
관측 수	119	119	120	119
R2	0.264	0.097	0.078	0.159
Adjusted R2	0.217	0.040	0.020	0.106
F 통계량	5.67***	1.70*	1.35	3.003**
더빈-왓슨 d	1.77	2.18	1.93	2.02

*p < 0.1; **p < 0.05; ***p < 0.01. 괄호안의 값은 표준오차.

성숙된 사회의 구현에도 기여할 수 있음을 발견하였다. 하지만 생활체육의 참여빈도와 참여기간은 사회자본을 구성하는 4가지 요인(정보공유, 규범, 신뢰, 연결망) 모두에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생활체육에의 참여빈도나 참여한 기간보다는 참여자가 어느 정도의 열의를 가지고 생활체육에 참여하는지가 중요하다고 판단 할 수 있다.

즉, 생활체육에 강한 열의를 갖고 참여할 때, 사회자본은 더욱 많이 형성될 수 있다. 본 연구는 생활체육을 운영하거나 기획하는 생활체육 관계자들과 사회의 발전을 추구하는 정부 관계자들에게 의미있는 결과를 제공할 수 있다. 생활체육 참여를 권장하여 사회자본을 축적할 수 있는데, 이 때 생활체육에 참여한 기간이나 빈도보다는 생활체육에 참여할 때의 열의가 사회자본 형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생활체육에 장기간 참여한 회원이든 신입회원이든, 생활체육 참여에 대한 열의가 중요하다. 기존회원은 모임에 낯설 수 있는 신입회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이끌어야 하고, 신입회원은 관성적일 수 있는 기존회원의 열의를 높일 수 있도록 모임에 신선함을 주어야 한다. 또한 생활체육에 자주 참여하던 참여하지 않는, 참여할 때 생활체육에 열의를 갖고 몰입할 수 있는 분위기나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생활체육에 자주 참여하지 못하다라도 냉대보다는 그들의 참여열의를 높이도록 해야 한다. 생활체육을 통하여 건전한 사회 구축에 기여할 수 있으므로, 생활체육이 더욱 활성화되도록 정책 방향을 수립해야 한다.

V. 결론 및 시사점

본 연구는 생활체육 참여자를 대상으로 설문지를 이용하여 생활체육 참여가 사회자본 형성에 주는 영향 관계를 규명하였다.

분석 결과, 생활체육의 참여열의는 사회자본을 구성하는 정보공유, 규범, 그리고 연결망에 영향을 주었다. 이는 생활체육 참여시 열의를 많이 가지고 참여하면 할수록 사회자본을 구성하는 정보공유, 규범, 연

결망 등의 형성에 영향을 주게 됨으로써 사회자본 형성에 영향을 주는 것이라 판단할 수 있다. 그러나 생활체육의 참여빈도와 참여기간은 사회자본을 구성하는 4가지 요인(정보공유, 규범, 신뢰, 연결망) 모두에 영향을 주지 못하였다. 생활체육에 대한 열의가 부족한 상태에서 습관적으로 오랜 기간 생활체육에 참여할 때는 정보공유, 규범 준수, 신뢰 형성, 연결망 확대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본 연구는 실증적인 분석을 통하여 생활체육 참여자의 열의가 사회자본 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사회적 지원, 전문가 초빙, 편안한 참여환경 제공, 강사들의 성실한 모습 등의 방법으로 생활체육 참여자들의 열의를 높일 수 있다면, 생활체육을 통하여 사회자본을 형성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는 궁극적으로 생활체육의 다른 요인들보다 참여 열의가 높을수록 사회자본의 형성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시사점을 제공한다. 또한 질적 연구에 초점이 맞추어진 사회자본과 관련된 연구에서 벗어나 실증적인 분석을 함으로써 사회자본의 형성에 도움을 주는 중요 요인을 도출하였기에 추후 생활체육과 사회자본간의 관계를 연구하는 연구자에게 가이드라인을 제시 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한계점을 갖고 있다. 설문 대상자가 수도권 거주자들이었기에 생활체육이 사회자본 형성에 영향을 준다는 결과를 전국적인 현상으로 일반화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다양한 지역으로부터의 자료를 이용한 분석이 요구된다. 또한 설문 조사는 응답자들의 인식에 기반하는 제약점이 있다.

추후 연구에서는 생활체육 참여가 사회자본 형성에 영향을 주는 메커니즘을 규명하기 위한 양적, 질적 연구들이 보다 활발히 이루어져야 한다. 더욱 다양한 생활체육 종목에 참여하는 응답자를 전국적으로 설문할 필요가 있으며, 생활체육 종목별로 영향 관계가 다를 수 있으므로 이를 통제하는 연구도 필요하다.

참고문헌

[국내 문헌]

[1] 강효민, 박기동(2008), 지역사회에서 스포츠클럽 활동과 사회적 자본 형성, 한국스포츠사회학회지, 제 21권 제 4호, 845-863.

[2] 김동현, 김영재, 이영재(2010), CoP활동이 사회적 자본과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 유한킴벌리, 포스코, 건강보험심사원 사례를 중심으로, 지식경영연구, 제 11권, 제 3호, 77-90.

[3] 김명준(2006), 스포츠 참여자의 사회 자본 척도 개발 적용, 한국콘텐츠학회 추계종합학술대회, 제 4권 제 2호.

[4] 김승현(2008), 사회적 자본의 구성요소와 상관관계에 관한 연구, 한국정치학회보, 제 42권 제 2호, 67-88.

[5] 김양래, 김미숙, 박영옥, 송홍선, 이용식, 한태룡, 권순용, 김정만(2010), "2010 국민생활체육 참여 실태조사", 문화체육관광부.

[5] 박창범, 임수원(2005), 인라인스케이트 동호인 사회연결망에서의 자원교환, 한국스포츠사회학회지, 제 18권 제 3호, 429-443.

[6] 박희봉, 김명환(2000), 지역사회 사회 자본과 거버넌스 능력: 서울, 서초구와 경기 포천군 주민의 인식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제 34권 제 3호, 175-196.

[7] 박희봉, 김명환(2001), 우리 나라 지역사회의 사회 자본 증진에 관한 연구, 한국정치학회보, 제 34권 제 4호, 219-237.

[8] 소영호(2007), 생활 체육 참가자의 참가정도와 감각추구성향이 운동몰입에 미치는 영향, 한국스포츠심리학회지, 제 18권 제 3호, 21-36.

[9] 송형석, 이홍구(2009), 독일의 여가정책: 생활체육과 스포츠클럽에 대한 현대적 성찰, 한국체육학회지, 제 48권 제 6호, 403-413.

[10] 유호(2011), 독일의 건강지향적 생활체육의 과제, 활동영역 그리고 목표집단에 관한 연구, 한

국체육과학회지, 제 20권 제 5호, 309-317.

[11] 이숙중, 김희경, 최준규(2008), 사회자본이 거버넌스 형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공무원과 시민단체 직원의 인식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제 42권 제 1호, 149-170.

[12] 이영찬, 김영재, 이승석(2009), 사회적 자본이 노사관계 및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연구, 지식경영연구, 133-150.

[13] 임번장(1994), 사회체육개론.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14] 진동철, 홍아정(2012), 조직원의 사회적 네트워크가 의사소통 및 혁신능력에 미치는 영향, 지식경영연구, 제 18권, 제 2호, 1-18.

[15] 재단법인 통계연구회(2009). 라디오 체조 및 커뮤니티 형성에 대한 연구 보고서.

[16] 최경애, 박창범, 임수원(2004), 볼링 동호인의 사회적 연결망 분석, 한국체육학회지, 제 43권 제 3호, 393-403.

[17] 최영출(2004), 지역의 사회 자본측정지표 설정, 지방정부연구, 제 8권 제 3호, 119-144.

[18] 함경수, 최종인(2010), 생활체육 동호인 활동이 커뮤니티 의식에 미치는 영향, 한국체육과학회지, 제 19권 제 4호, 333-343.

[국외 문헌]

[1] Bourdieu, P. (1986), *The Forms of Capital*, in J. Richardson, ed. *Handbook of Theory and Research for the Sociology of Education*, Westport, CT: Greenwood Press.

[2] Chiesi, A. M. (2007), Measuring Social Capital and Its Effectiveness. The Case of Small Entrepreneurs in Italy, *European Sociological Review*, 23(4), 437-453.

[3] Coleman, J. (1988), Social Capital in The Creation of Human Capital,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4, 95-120.

- [4] Grootaert C., and Bastelare T. (2002), *The Role of Social Capital in Development: An Empirical Assessment*, N.Y. Cambridge University Press.
- [5] Gujarati, D. N. (2003), *Basic Econometrics*, 4th eds., McGraw-Hill Book Co., New York, NY.
- [6] Hair, J. F., Anderson, R. E., Tatham, R. L., and Black, W. C. (1998), *Multivariate Data Analysis*, 5th eds., Prentice-Hall, Inc., Upper Saddle River, NJ.
- [7] Lee. S., and Kim, S. (2006), A Lag Effect of IT Investment on Firm performance, *Information Resources Management Journal*, 19(1), 43-69.
- [8] Narayan, D. and Cassidy, M. F. (2001), A Dimensional Approach to Measuring Social Capital: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a Social Capital Inventory, *Current Sociology*, 49(2), 59-102.
- [9] Nunnally, J. C. (1978), *Psychometric theory* (2nd ed), New York: McGraw-Hill.
- [10] Pichler, F. and Wallace, C. (2007), Patterns of Formal and Informal Social Capital in Europe, *European Sociological Review*, 23(4), 423-435.
- [11] Putnam, R. D., Leonardi, R. and Nanetti, R. (1993), *Making Democracy Work: Civic Traditions in Modern Italy*,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12] Putnam, R. D. (1995), Bowling Alone: America's Declining Social Capital, *Journal of Democracy*, 6(1), 65-78.
- [13] Rohe, W. (2004), Building Social Capital Through Community Development. *Journal of the American Planning Association*, 70(2).

● 저 자 소 개 ●



김 재 경 (Jaekyeong Kim)

서울대학교에서 산업공학 학사, 한국 과학기술원에서 경영정보시스템 전공으로 석사 및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현재경희대학교 경영대학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미국 미네소타주립대학교 그리고 텍사스 주립대학교(달라스)에서 교환교수를 역임하였다. 주요 관심분야로는 비즈니스인텔리전스/추천시스템, 유비쿼터스 서비스, 사회 네트워크분석 등이다. 저탄소녹색성장국민포럼그린IT 분과위원, 경희대학교 경영대학 BK21 사업단장, Information Technology and management(SSCI) 저널의 AE(Associate Editor)를 역임중이다.



박 득 희 (Deukhee Park)

경희대학교 일반대학원 경영학과에서 MIS 전공으로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현재 경희대학교 일반대학원 관광학과 박사과정에 재학 중이다. 연구관심분야로는 데이터 마이닝, 사회네트워크분석, 관광지마케팅 등이다. 그의 논문은 Expert Systems with Applications의 국제학술지 와 지능정보연구, 한국IT서비스학회지 등의 국내학술지에 발표되었다.



정 순 옥 (Soonok Jung)

니혼대학교 대학원 상학연구과에서 상학을 전공으로 석사, 박사학위를 취득하였고, 현재 사이타마 여자단기대학 상학과 조교수로 재임 중이다. 주요 관심연구 분야는 관계마케팅, 사회관계자본, 유통전략, concierge system이다.



Mitsuo Sasaki

From 1970 to 1972 studied at the University of St. Gallen, Switzerland as an Eidgenoessischer Stipendiat. In 1975 received M.A. in economics from Waseda University. In 1983 lectured on competition policy and information society at the University of Kassel, Germany In 1985 lectured on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at Lund University, Sweden. In 1987 lectured on telecommunications policy at the University of Kassel. Now a professor in macromarketing at the Graduate School of Business Administration and the College of Commerce, Nihon University in Tokyo. Research areas: macromarketing; economic sociology (since 2010 chaired as the president of the Society of Economic Sociology in Japan).